

#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어휘 능력 연구

장선아 · 박희영 · 김문홍

(우송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우송대학교)

**Chang, Son-A, Park, Heeyoung & Kim, Moonhong. (2014). A Study on Korean Vocabulary Proficienc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2(4), 225-252.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Korean vocabulary proficiency of Chinese students who study at a university in Korea and to provide a discussion about Korean vocabulary acquisition of foreign students. 23 Chinese students participated in three tests for receptive and expressive Korean vocabulary abilities. The words in each test were classified by word-class (noun, verb, adjective), word-type (Sino-Korean word, loanword, native-Korean word), and difficulty level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and compared with each other. Chinese students had significantly lower scores on the measure of expressive than receptive vocabulary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receptive vocabulary tests. They had more difficulty comprehending (a) verbs than nouns and adjectives, (b) native-Korean words than Sino-Koreans, and (c) advanced than intermediate words. They had more difficulty expressing (a) adjectives than nouns and verbs, (b) Sino-Koreans than native-Korean words, and (c) intermediate and advanced than beginner word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all the vocabulary measures and the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The period of learning Korean in Kore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only with expressive vocabulary proficiency. Our findings provided advanced information about Korean vocabulary acquisition i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underscored the need for various approaches to Korean vocabulary assessment and education.

**주제어(Key Words):** 한국어 어휘력(Korean vocabulary proficiency), 중국인 유학생(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생활 어휘(daily vocabulary), 발달적 수용 어휘(developmental receptive vocabulary), 발달적 표현 어휘(developmental expressive vocabulary)

## 1. 서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가 증가 일로에 있다. 중국인의 경우, 한국 내에 2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학업 중인 학생들은 6만 명 이상으로 국내 전체 유학생의 약 77%를 차지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제가 대두되어 왔고, 이들의 한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박미숙, 2010).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修學)능력 연구는 영어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이 외국인 유학생의 수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들의 학습 참여도와 자신감을 비롯하여 사회적 적응을 좌우하는 변수라 하였다(Robertson et al., 2000; Sawir, 2005).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관한 국내 연구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박미숙(2010)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유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언어소통의 어려움(76.7%)이라 하였고, 언어소통의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학습의 어려움, 사회적 적응보다 더 크다고 하였다. 조희수와 전경태(2009)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대인관계 및 언어 능력의 향상이 필수 과제라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에 거주하며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여러 가지 언어 능력 중에 제2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어휘 학습 방법을 비교하는 등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Lawson & Hogben, 1996).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선미(2007)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화 등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이 모든 분야의 기본 능력은 어휘 능력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휘에 대한 이해 없이는 명확한 의미도출이 불가능하며, 어휘능력은 모든 언어능력의 근간을 이루고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특히 제2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Lawson & Hogben, 1996; Nation, 1990). 외국인 학습자가 의사소통 시에 겪는 어려움 중 어휘부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문법이나 발음에 비해 더 중요함(조현용, 2000)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인 언어능력이나 독해력 위주의 연구 또는 문법 연구에 치우쳐 왔다(Maiguashca, 1993; 이주영, 2008; 범신성, 2010).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휘력에 대한 연구 또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중요성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휘력을 측정된 연구들은 읽기나 쓰기 위주의 어휘력을 다루었으며, 어휘에 대한 듣기이해력, 즉 단어를 듣고 적절한 그림이나 상황을 찾는 방식으로 어휘력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 어휘의 듣기이해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요 생활 장면인 수업이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언어 능력이다. 한편, 독해 과제를 통한 어휘의 읽

기이해력은 대학 수학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유학생들의 어휘검사방법으로 적절할 뿐만 아니라, 검사의 용이성과 객관성으로 인해 연구에 적합하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어휘 평가에는 듣기와 읽기 두 가지 형태의 어휘이해력 평가가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어휘에 대한 이해력뿐만 아니라, 학습된 어휘가 실제로 의사소통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쓰기를 통한 표현 어휘로의 진전이 요구된다(한상미, 2002).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어휘 연구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이수정 외, 2008), 성인 대상의 한국어 표현어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어 어휘습득을 이해와 표현 측면에서 조사하고, 더 나아가 어휘의 특성, 즉 품사나 어종, 난이도 등의 하위 분류에 따른 어휘 습득의 차이를 살펴본다면 유학생들의 한국어 어휘교육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품사에 따른 한국 어휘 이해력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김경령(2010)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명사보다 동사의 습득에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였고, 유형선(2008)은 한국어 실력이 중급인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휘 사용에 있어서 형용사의 사용보다 동사의 사용에서 더 빈번한 오류를 보였다고 하였다.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동사나 형용사보다 명사가 우선적으로 습득된다고 알려져 있다(Pence & Justice, 2011).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습득하는 중국인들이 명사보다 동사의 습득이 더 많았다면 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어 어휘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진다.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간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을 살펴보면 한자어는 57%인데 비해 고유어는 36%, 외래어는 7% 정도이다. 이렇게 한국어 어휘는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한자어의 사용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휘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김중섭, 1997; 바오지양, 2012; 범신성, 2010; 이주영, 2008). 한자를 공유하고 있는 특성 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자어를 고유어에 비해 더 많이, 쉽게 이해한다고 한다(범신성, 2010). 그러나 한국어에서 실제 활용면에 있어서는 고유어 54%, 한자어 35%, 외래어 2% 정도(이재훈, 2012)이며, 한국어에서의 한자어, 중국어에서의 한자어,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등 한자어의 형태 및 어휘 특성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이 다양한 습득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다(김경령, 2010; 바오지양, 2012; 이주영, 2008). 한편, 외국인을 위한 외래어 교육은 한자어나 고유어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김경령, 2010). 특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영어 어원 외래어 습득에 어려움이 더 크며, 소리를 따라 외래어를 만드는 경향이 강한 한국어는 주로 의미를 따라 외래어를 만드는 중국어의 특성과 달라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정소, 2012).

어휘의 난이도가 외국인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어휘

빈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서상규, 1998; 문금현, 2000). 그러나 이선미(2007)는 명사 어휘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빈도수, 음절수, 동음이의어 존재여부, 복잡성, 추상성 등이라 하였고, 빈도수가 높다고 외국인 학습자에게 꼭 쉬운 것은 아님을 밝혔다. 또한, 쉬운 단어라고 먼저 익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도록 효율적인 어휘 학습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인 학습자가 초급보다 중급 어휘를 더 정확히 습득하였거나(김경령, 2010), 북한 새터민들이 중급 어휘를 가장 어려워하고 초급 어휘보다 고급 어휘를 더 많이 습득하고 있는 현상(문금현 외, 2005)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휘의 난이도를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어휘 학습에 반영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호(2010)는 전공별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김경령(2010)은 한국어 교육을 일반 목적과 특정 목적으로 나누고 특정 목적 한국어 교육은 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어휘 및 교육 내용에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한국어 교육의 형태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러한 어휘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하는 어휘의 난이도 특성을 유학생들의 관점에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어휘 교육을 시행할 때 어휘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습득 평가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어휘 발달 평가를 위해 언어발달 분야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발달어휘검사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휘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생활 어휘력은 어휘의 독해를 통해 읽기 어휘력을 측정하였고, 발달적 어휘력은 청각적 자극을 통해 듣기 어휘력을 측정하였다. 읽기 이해력과 듣기 이해력을 모두 측정하는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업 중에서의 어휘의 이해 정도를 모두 파악하여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습득 현황과 이들을 위한 어휘학습방법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품사별, 어종별, 난이도별 분석을 통해 보다 실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부가적으로, 대상자들의 한국어능력과 관련된 정보들을 분석하여 관련 논의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조사하였다.

첫째,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어휘검사를 통해 나타난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어휘검사를 통해 나타난 중국인 유학생들의 품사별 어휘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어휘검사를 통해 나타난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종별 어휘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어휘검사를 통해 나타난 중국인 유학생들의 난이도별 어휘력 간에 차이가 있는가?

다섯째,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관련정보들과 한국어 생활어휘력,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력 간에 상관이 있는가?

## 2. 연구 방법

### 2.1. 연구 대상

충남권 소재의 00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23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본 연구의 실험에 참가하였다. 실험은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는 18세 이상의 한족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는 주 실험 이전에 미리 준비된 설문지를 통해 나이, 성별, 전공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점수 등의 한국어실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전체 23명의 실험참가자 중 8명은 남학생, 15명은 여학생으로 평균연령이 24.13세(표준편차 1.69세)이며 한국 거주기간이 평균 30.61개월(표준편차 21.71개월)이었다.

중국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은 평균 31.26개월(표준편차 10.99개월)이며,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기간은 평균 16.83개월(표준편차 11.11개월),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기간은 평균 14.43개월(표준편차 12.10개월)이었다. 23명의 참가자 모두 한국어 학습경험이 있었으며, 15명의 학생이 중국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였고, 3명의 학생은 중국에서만, 5명의 학생은 한국에서만 한국어를 학습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은 전체 23명의 참가자 중 16명의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여 인증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7명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16명의 학생 중 13명은 한국어능력검사(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서 고급 및 중급 인증점수를 받았고 3명의 학생은 세계한국말인증시험(KLP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에서 인증점수를 받았다. TOPIK 고급에 응시한 4명의 평균점수는 400점 만점에 268.75점(표준편차 34.96), TOPIK 중급에 응시한 9명의 평균점수는 400점 만점에 257.56점(표준편차 39.63), KLPT에 응시한 3명의 평균점수는 500점 만점에 340점(표준편차 36.06)을 받았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중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인증 점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표 1과 표 2는 실험참가자들의 일반적인 정보와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정보(N=23)

대상 번호	성별	연령 (세)	한국거주 기간 (개월)	중국+한국내 한국어학습 기간(개월)	중국내 한국어학습기 간(개월)	한국내 한국어학습 기간(개월)
1	여	24	36	60	24	36
2	여	25	36	24	24	0
3	여	27	54	27	3	24
4	여	24	48	24	0	24
5	여	23	7	31	24	7
6	남	25	54	24	12	12
7	남	25	48	36	12	24
8	남	25	54	12	12	0
9	여	25	48	24	0	24
10	여	24	48	24	0	24
11	여	25	30	24	24	0
12	남	28	72	48	0	48
13	여	25	7	43	36	7
14	여	26	48	12	0	12
15	남	25	48	48	24	24
16	여	22	12	36	24	12
17	남	22	9	33	24	9
18	남	23	9	33	24	9
19	남	23	7	31	24	7
20	여	22	7	31	24	7
21	여	23	6	30	24	6
22	여	21	9	33	24	9
23	여	23	7	31	24	7

표 2. 연구대상자의 한국어능력 인증점수 정보(N=16)

대상번호	한국어능력 인증점수			M (SD)
	TOPIK*		KLPT** (500점 만점)	
	(400점 만점)			
	고급	중급		
1	282			
2	294			268.75
3	282			(34.96)
4	217			
5		246		
6		320		
7		246		
8		200		
9		290		257.56
10		283		(39.63)
11		222		
12		223		
13		288		
14			350	340
15			370	(36.06)
16			300	

\* 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한국어능력검사와 결과

\*\* KLP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세계한국말인증시험결과

대상번호 참가자는 표 1의 1번에서 16번의 대상번호 참가자와 동일하다.

17번에서 23번의 7명의 실험참가자는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 2.2. 검사도구

본 연구는 3가지 종류의 한국어 어휘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들은 문금현 외 5명의 연구자가 개발한 어휘테스트(문금현 외, 2005)를 수정한 한국어생활어휘검사와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 외, 2009)의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 검사에 참여하였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내용적인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문금현, 2005; 문금현 외, 2005; 김경령, 2010)이며, 읽기이해검사로 시각적으로 제시된 단어의 이해력을 측정한다. REVT는 2세에서 16세 이상의 성인 집단까지 표준화된 검사로, 수용어휘검사는 청각적으로 제시된 단어의 이해력을, 표현어휘검사는 시각적으로 제시된 그림에 해당하는 단어의 구두 표현력을

측정한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REVT의 검사순서는 대상자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하여 각기 다른 순서로 제시하였고 REVT 표현어휘검사는 평가실시방법에 따라 수용어휘검사보다 항상 먼저 실시하였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는 피험자가 스스로 각 어휘문항을 읽고 그 단어를 알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안다'라고 쓰인 칸에, 몰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른다'라고 쓰인 칸에 체크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력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금현 외(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200개의 문항들 중 5개의 문항을 임의로 제거한 뒤 무의미 단어('관추', '사루이다', '만년당', '쿠다미', '사마리')로 대체하여 다시 200개의 어휘(실제 어휘검사항목: 195단어)로 재구성하였다. 5개의 무의미 단어 중 3개 이상의 단어에서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피험자들은 어휘이해 반응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최종 연구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무의미 단어검사를 통해 3명의 실험대상자(대상번호 3, 12, 18)가 낮은 신뢰도로 한국어 생활어휘력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REVT의 수용 및 표현어휘검사는 각각 185문항으로, 수용어휘검사는 글자 단서 없이 검사자가 목표어휘를 들려주면 피험자가 4개의 보기 그림에서 정답을 찾아 손가락으로 지적하도록 요구하였고, 표현어휘검사는 검사자가 제시하는 그림을 보고 피험자가 그림에 해당하는 목표어휘를 말하도록 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REVT를 생활어휘검사와 비교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REVT의 수용어휘검사를 발달적 수용어휘검사로, REVT의 표현어휘검사를 발달적 표현어휘검사로 지칭하였다.

### 2.3. 자료 분석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들의 성별과 연령, 한국 거주기간, 중국 및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기간,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인증점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검사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 및 개별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산출하였고, 세 검사의 어휘력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을 사용하고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 검사의 검사문항을 각각 3가지 기준(품사, 어종, 난이도)으로 분류하여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품사별(명사, 동사, 형용사), 어종별(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또는 난이도별(초급, 중급, 고급) 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을 사용하고 기준별 분류 요인들의 어휘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Bonferroni 사후검정 또는 대응표본 t검정(paired-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고, Mauchly 구형성 영가설이 위반되었을 때 자유도 수정에 의한 통계결과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능력 관련정보와 한국어 생활어휘력,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검정은 SPSS version 19.0에 의해 분석되었다.



### 3. 연구 결과

#### 3.1.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

표 3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력을 나타낸다.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검사는 23명의 참가자 전원을 연구분석에 포함하고,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는 5개의 무의미 단어 중 3개 이상의 단어에서 뜻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참가자 3명을 제외한 20명을 연구분석에 포함하였다. 발달적 어휘검사는 검사자에 의해 정답유무가 확인되어 어휘력이 정확히 평가되는 반면,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는 검사자의 검증 없이 피험자의 개인판단에 따른 반응으로 어휘력이 평가되므로 신뢰도 검증을 통과한 20명의 피험자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생활어휘검사의 평균은 127.65(총점195점)로 65.46% (표준편차 15.4)의 정확도를 보였고, 개인별 정확도의 편차가 최소 35.90%에서 최대 93.33%로 나타났다. 발달적 수용어휘검사(N=23)의 평균은 104.70(총점185점)으로 56.59%(표준편차 29.15)의 정확도를 보였고, 개인별 정확도의 편차가 최소 3.24%에서 최대 92.43%로 생활어휘검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수용어휘검사의 평균점수는 언어발달 기준의 등가연령 10세 10개월에 해당되는 점수로 수용어휘력이 초등학교 고학년(4~5학년) 수준에 머물렀다. 발달적 표현어휘검사(N=23)의 평균은 21.09(총점185점)로 11.40%(표준편차 11.62)의 정확도를 보였고, 개인별 정확도의 편차가 최소 0%(23명 중 8명의 학생이 0점을 기록)에서 최대 44.32%로 나타나 앞의 2가지 어휘이해력 검사에 비해 평균이 크게 낮아지고 개인별 편차는 줄어들었다. 표현어휘검사의 평균점수는 언어발달 기준의 등가연령 1세에 해당되는 점수로 표현어휘력이 극히 낮음을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을 실시한 결과, 3가지 과제의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272, 24.165)=106.43, p<.001$ ). 어휘과제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현어휘과제가 생활어휘과제 및 수용어휘과제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현어휘력 대 생활어휘력:  $p<.001$ ; 표현어휘력 대 수용어휘력:  $p<.001$ ). 이들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표현어휘력이 읽기(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듣기(발달적 수용어휘검사)를 통한 이해어휘력에 비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그림 1).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생활어휘검사(N=20)와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검사(N=23)의 개별 항목별 정답률을 부록 1과 2, 3에 제시하였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부록 1)에서는 ‘교사’ 이외의 20단어(교통사고, 긴장하다, 뻘하다, 인터넷, 여성용, 유학, 유행, 드라마, 마케팅, 흡쇼핑, 휴게실, 고객, 국산품, 지하철, 부동산, 상품권, 샤워, 서비스, 세일, 아르바이트)에서 참가자 전원 20명이 ‘안다’라고 반응하여 가장 높은 정답률(100%)을 보였고, ‘감봉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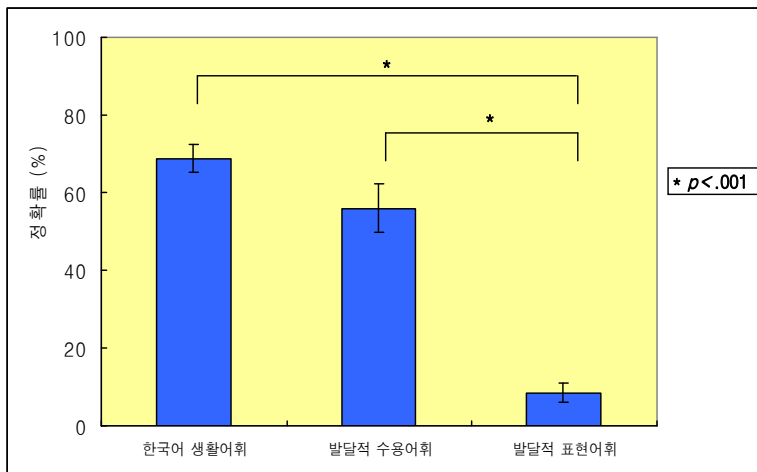
와 ‘사십구제’는 20명 중 1명이 ‘안다’라고 반응하여 가장 낮은 정답률(5%)을 보였다. 발달적 수용어휘검사(부록 2)에서는 ‘요리사’에서 23명 중 22명이 정반응하여 가장 높은 정답률(95.65%)을 보였고, ‘가축’, ‘기마전’, ‘고삐’, ‘조정하다’, ‘상쇄하다’에서 23명 중 3명이 정반응하여 가장 낮은 정답률(13.04%)을 보였다. 발달적 표현어휘검사(부록 3)에서는 ‘냉장고’, ‘컴퓨터’, ‘앉아있다’, ‘줍다’, ‘싸우다’, ‘경찰’에서 23명 중 15명이 정반응하여 가장 높은 정답률(65.22%)을 보였고, ‘거미줄’, ‘북’, ‘기어가다’, ‘바이올린’, ‘스케이트’ 등 95문항에서 중국인 유학생 전원이 답을 제시하지 못하여 0%의 정답률을 보였다.

표 3.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 정확도(Max=100%)

검사	M	SD	Min	Max	Range
한국어 생활어휘검사(N=20)*	65.46	15.47	35.90	93.33	57.43
발달적 수용어휘검사(N=23)**	56.59	29.15	3.24	92.43	89.19
발달적 표현어휘검사(N=23)***	11.40	11.62	0	44.32	44.32

- \* 문금현 외(2005)의 어휘테스트 목록을 일부 수정
- \*\* 발달적 수용어휘검사: REVT(김영태 외, 2005) 중 수용어휘력검사 사용
- \*\*\* 발달적 표현어휘검사: REVT(김영태 외, 2005) 중 표현어휘력검사 사용

그림 1. 한국어 생활어휘와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 검사의 평균 비교



### 3.2. 품사별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195문항을 3가지 품사(명사, 동사, 형용사)로 분류하였다. 명사가 170개(87.18%), 동사가 15개(7.69%), 형용사가 10개(5.13%)로 명사>동사>형용사 순의 분포를 보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품사별 생활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형용사가 66.50%로 가장 높았고, 명사가 66.26%, 동사가 55.67%로 가장 낮았다.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의 185문항을 동일한 3가지 품사로 분류하면 명사가 98개(52.97%), 동사가 68개(36.76%), 형용사가 19개(10.27%)로 명사>동사>형용사의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품사분포 순서와 일치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언어발달평가에 근거한 품사별 수용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형용사의 정확도가 59.04%로 가장 높았고, 명사가 57.28%, 동사가 54.92%로 가장 낮아 품사별 생활어휘력 순서와 일치하였다. 두 가지 이해검사의 품사별 어휘력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에서의 정확도가 3가지 품사 모두에서 발달적 수용어휘력보다 높게 나타났고 개인별 점수 차이의 폭도 줄어들었다. 발달적 표현어휘검사의 185문항을 3가지 품사로 분류하면 명사가 106개(57.30%), 동사가 57개(30.81%), 형용사가 22개(11.89%)로 명사>동사>형용사 순으로 앞의 2가지 이해검사의 품사 분포순서와 일치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언어발달평가에 근거한 품사별 표현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동사의 정확도가 12.05%로 가장 높았고, 명사가 11.81%, 형용사가 10.08%로 가장 낮아 앞의 2가지 품사별 이해어휘력 순서와 상이한 차이를 보였고, 3가지 품사 모두에서 이해어휘력에 비해 표현어휘력이 크게 낮아졌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적 어휘검사를 통한 품사별 이해 및 표현 어휘력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고, 3가지 검사의 품사별 비교결과 그래프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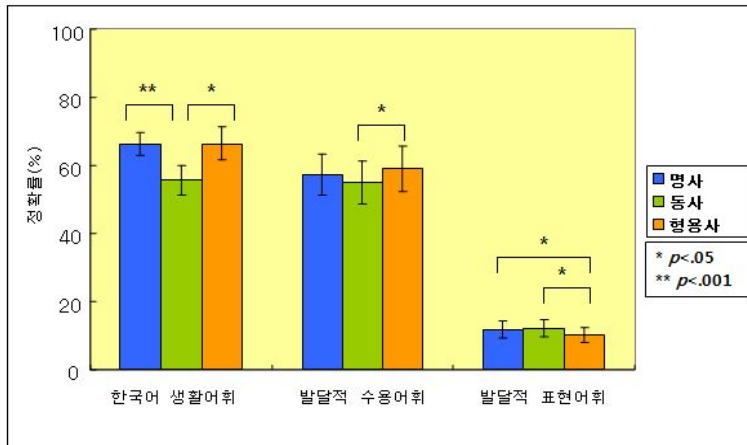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품사별 생활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을 실시한 결과, 3가지 품사별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265, 24.026)=7.729, p<.01$ ). 품사별 생활어휘력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동사의 어휘력이 명사 및 형용사의 어휘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동사 대 명사:  $p<.001$ ; 동사 대 형용사:  $p<.05$ ). 이들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에서 명사와 형용사에 비해 동사의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에서 품사별 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 품사별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F(2, 44)=4.022, p<.05$ ),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동사와 형용사의 어휘력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5$ ). 이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에서 형용사에 비해 동사의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발달적 표현어휘검사에서 품사별 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 품사별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F(2,$

44)=5.615,  $p<.01$ ),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명사 및 동사의 어휘력이 형용사의 어휘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형용사 대 명사:  $p<.05$ ; 형용사 대 동사:  $p<.05$ ). 이들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발달적 표현어휘검사에서 형용사에 비해 명사 및 동사의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보여주며, 이는 앞의 2가지 이해어휘력검사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가지 어휘검사 모두 품사별 비교에서 형용사의 분포비율이 다른 품사에 비해 낮으므로 결과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4.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언어발달검사의 품사별 어휘 정확도(Max=100%)

	한국어 생활어휘검사 (N=20)			발달적 수용어휘검사 (N=23)			발달적 표현어휘검사 (N=23)		
	M	SD	Range (Min-Max)	M	SD	Range (Min-Max)	M	SD	Range (Min-Max)
명사	66.26	15.22	55.29 (37.65-92.94)	57.28	28.44	86.74 (4.08-90.82)	11.81	11.54	45.28 (0-45.28)
동사	55.67	19.38	66.66 (26.67-93.33)	54.92	29.99	94.12 (0-94.12)	12.05	11.82	43.86 (0-43.86)
형용사	66.50	21.34	80 (20.0-100)	59.04	31.62	94.74 (5.26-100)	10.08	10.52	40.91 (0-40.91)

그림 2. 각 어휘검사의 품사별 어휘력 비교



### 3.3. 어종별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195문항을 3가지 어종(한자어, 외래어, 고유어)으로 분류하였다. 어휘의 어종이 복합어일 경우, ‘고유어+한자어’는 한자어로, ‘고유어+외래어’는 외래어로, ‘한자어+외래어’는 외래어로 문금현 외(2005)의 어휘연구에서 사용된 분류방법을 따랐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는 한자어가 102개(52.31%), 외래어가 78개(40%), 고유어가 15개(7.69%)로 한자어>외래어>고유어 순의 분포를 보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를 통한 어종별 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한자어가 68.82%로 가장 높았고, 외래어가 64.87%, 고유어가 45.67%로 가장 낮았다.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의 185문항을 동일한 3가지 어종으로 분류하면 한자어가 115개(62.16%), 외래어가 1개(.54%), 고유어가 69개(10.27%)로 한자어>고유어>외래어 순으로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어종분포 순서와 일치하지 않았고, 외래어의 비율이 극히 낮아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어종별 수용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고유어의 정확도가 75.09%, 한자어가 56.03%로 생활어휘검사의 어종별 어휘력 순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발달적 표현어휘검사의 185문항을 3가지 어종으로 분류하면 한자어가 90개(48.65%), 외래어가 6개(3.24%), 고유어가 89개(48.11%)로 한자어>고유어>외래어 순으로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의 어종분포 순서와 일치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어종별 표현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외래어의 정확도가 15.22%로 가장 높았고, 고유어가 14.12%, 한자어가 8.45%로 가장 낮게 나타나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의 어종별 어휘력의 순서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외래어의 수가 다른 어종에 비해 매우 낮으므로 어휘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더라도 유의미한 해석을 가지지는 않는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적 어휘검사를 통한 어종별 이해 및 표현 어휘력의 결과를 표 5에 제시하고, 3가지 검사의 어종별 비교결과 그래프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어종별 생활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을 실시한 결과, 3가지 어종별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38)=37.831, p<.001$ ). 어종별 어휘력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유어의 어휘력이 한자어 및 외래어의 어휘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유어 대 한자어:  $p<.001$ ; 고유어 대 외래어:  $p<.001$ ). 이들 결과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에서 한자어와 외래어에 비해 고유어의 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에서 어종별(외래어 제외) 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paired-samples  $t$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자어와 고유어의 이해어휘력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479, p=.637$ ). 발달적 표현어휘검사(N=23) 또한 외래어의 비율(6문항)이 낮으므로 어종별 어휘력 분석에서 생략하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어휘력 차이만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한자어에 비해 고유어의 표현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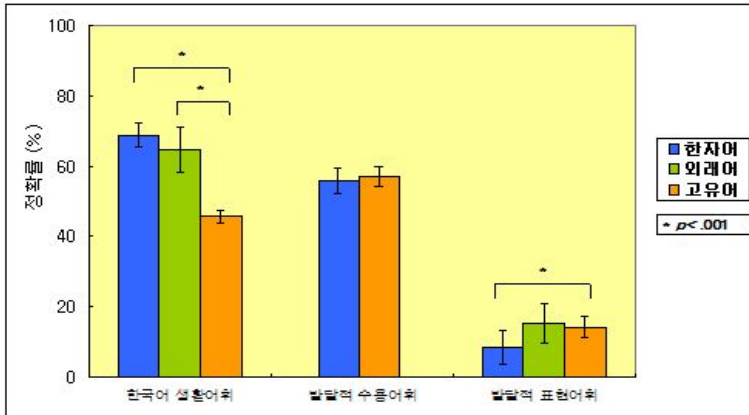
( $t=5.056, p<.001$ ),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결과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즉, 수용의 생활어휘에서는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높은 이해를 보인 반면, 표현어휘에서는 역으로 고유어가 한자어보다 높은 표현을 보였다.

표 5.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언어발달검사의 어종별 어휘 정확도(Max=100%)

	한국어 생활어휘검사 (N=20)			발달적 수용어휘검사 (N=23)			발달적 표현어휘검사 (N=23)		
	M	SD	Range (Min-Max)	M	SD	Range (Min-Max)	M	SD	Range (Min-Max)
한자어	68.82	15.87	52.94 (42.16-95.10)	56.03	30.90	89.56 (1.74-91.30)	8.45	9.23	35.56 (0-35.56)
외래어	64.87	16.51	61.54 (29.49-91.03)	-	-	-	15.22	14.14	50 (0-50)
고유어	45.67	21.44	80 (13.33-93.33)	57.09	27.40	88.40 (5.80-94.20)	14.12	14.06	52.81 (0-52.81)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에서 외래어 분포가 극소수(1개)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3. 각 어휘검사의 어종별 어휘력 비교



### 3.4. 난이도별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195문항을 문금현 외(2005)의 어휘연구에서 제시한 분류방법에 따라 3가지 수준의 난이도(초급, 중급, 고급)별로 분류하였다. 초급어휘가 22개(11.28%), 중급어휘가 70개(35.90%), 고급어휘가 103개(52.82%)로 고급어휘>중급어휘>초급어휘 순의 분포를 보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한국어 생활어휘검사를 통한 난이도별 어휘 정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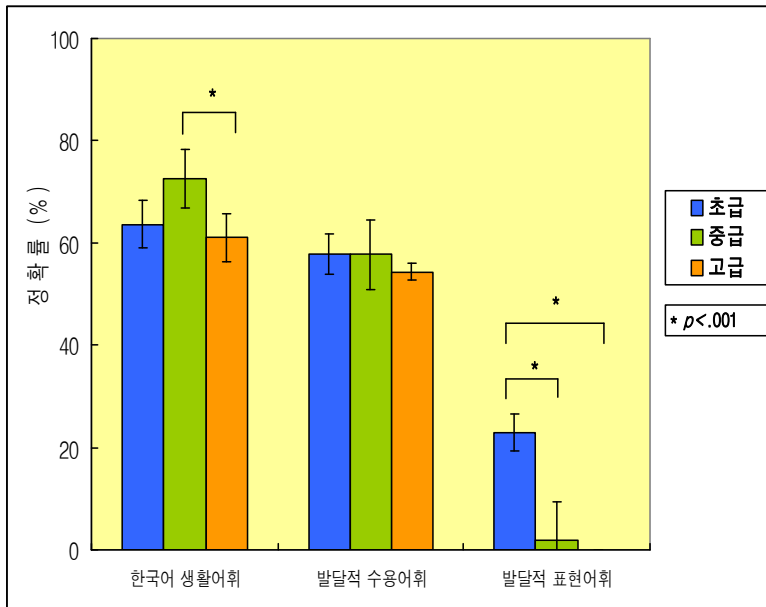
도를 비교하면 중급어휘가 72.57%로 가장 높았고, 초급어휘가 63.64%, 고급어휘가 61.02%로 가장 낮았다. 발달적 수용어휘검사는 만 2세 6개월에서 만 16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생활연령에 따라 검사시작문항이 나누어지므로 3가지 수준의 난이도(초급, 중급, 고급)를 분류하기 위하여 초급을 2세에서 9세, 중급을 10세에서 12세, 고급을 13세 이상에 해당되는 문항들로 구분하였다. 초급어휘가 90개(48.65%), 중급어휘가 30개(16.22%), 고급어휘가 65개(35.14%)로 초급어휘>고급어휘>중급어휘 순으로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난이도분포 순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난이도별 수용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초급어휘가 57.87%로 가장 높았고, 중급어휘가 57.68%, 고급어휘가 54.31%로 가장 낮아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난이도별 어휘력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았다. 즉, 두 이해검사의 난이도별 어휘력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에서 중급어휘력이 가장 높은 반면,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에서 초급어휘력이 가장 높았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난이도별 표현어휘 정확도를 비교하면 초급어휘가 22.85%로 가장 높았고, 중급어휘가 1.74%이며 고급어휘는 참가자 전원이 답을 말하지 못하여 가장 낮았다. 이는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의 난이도별 어휘력의 순서와 일치하나, 3가지 난이도 모두에서 표현어휘력이 앞의 2가지 이해어휘력에 비해 크게 떨어짐을 보여준다.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발달적 어휘검사를 통한 난이도별 이해 및 표현 어휘력의 결과를 표 6에 제시하고, 3가지 검사의 난이도별 비교결과 그래프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난이도별 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ments of ANOVA)을 실시한 결과, 3가지 수준의 난이도별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362, 25.883)=6.327, p<.05$ ). 난이도별 어휘이해력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중급어휘와 고급어휘의 이해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1$ ). 이 결과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에서 중급어휘에 비해 고급어휘의 이해력이 유의미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들(N=23)의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검사에서 난이도별 어휘력 간의 차이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용어휘검사에서 3가지 난이도별 어휘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F(1.314, 28.909)=.415, p=.580$ ), 표현어휘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204, 26.497)=623.983, p<.001$ ). 난이도별 표현어휘력 간의 개별적인 비교를 위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초급어휘가 중급 및 고급어휘의 표현어휘력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초급어휘 대 중급어휘:  $p<.001$ ; 초급어휘 대 고급어휘:  $p<.001$ ). 이들 결과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언어발달평가에 근거한 표현어휘검사에서 중급 및 고급어휘에 비해 초급어휘력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나타내며, 이는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결과와 상이한 차이를 보였다. 즉, 수용의 생활어휘에서는 초급어휘의 이해가 중급 및 고급어휘보다 높은 이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표현어휘에서는 초급어휘가 중급 및 고급어휘보다 높은 표현어휘력을 보였다.

표 6.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와 언어발달검사의 난이도별 어휘 정확도(Max=100%)

	한국어 생활어휘검사 (N=20)			발달적 수용어휘검사 (N=23)			발달적 표현어휘검사 (N=23)		
	M	SD	Range (Min-Max)	M	SD	Range (Min-Max)	M	SD	Range (Min-Max)
초급	63.64	20.75	90.91 (0-90.91)	57.87	27.71	86.66 (6.67-93.33)	22.85	22.27	77.78 (0-77.78)
중급	72.57	17.12	60 (38.57-98.57)	57.68	33.17	96.67 (0-96.67)	1.74	8.34	40 (0-40)
고급	61.02	15.91	59.22 (31.07-90.29)	54.31	36.48	98.46 (0-98.46)	0	0	0

그림 4. 각 어휘검사의 난이도별 어휘력 비교



### 3.5. 한국어 관련정보와 한국어 생활어휘력,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간 상관관계

표 7은 중국인 유학생들(N=20)의 한국어 관련정보들과 한국어 생활어휘력,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거주기간이 3가지 어휘력 모두와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중국 및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기간이 2가지 이해어휘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기간이 표현어휘력과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들 결과들은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이 한국 거주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과, 특히 표현어휘력은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습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3가지 어휘력은 서로 모두 유의수준 .05이상의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생활어휘력과 발달적 수용 및 표현 어휘력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한국어 관련정보와 한국어 생활어휘력, 발달적 수용 및 표현어휘력 간의 상관관계(N=20)

	1	2	3	4	5	6	7
1. 한국거주기간	-						
2. 한국어학습기간(중국+한국)	.299	-					
3. 한국어학습기간(중국)	.739***	.579**	-				
4. 한국어학습기간(한국)	.456*	.494*	.423	-			
5. 한국어 생활어휘검사	.608**	.002	.313	.337	-		
6. 발달적 수용어휘검사	.629**	.093	.348	.268	.860***	-	
7. 발달적 표현어휘검사	.583**	.177	.303	.520*	.651**	.533*	-

\* $p < .05$ , \*\* $p < .01$ , \*\*\* $p < .001$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듣기와 읽기를 통해 수용어휘능력을 평가하고, 표현어휘검사를 함께 실시하여 이들의 한국어 어휘능력에 관한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교육에 관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생활어휘력은 유사한 검사도구를 사용한 이전 연구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 65.46%로, 문금현 외(2005)의 북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81.25%와 김경령(2010)의 서울권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72.77%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점수를 얻었다. 문금현 외(2005)의 연구는 실험대상이 북한 새터민으로 남한의 한국어 학습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에 비해 용이하므로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김경령(2010)의 연구는 같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본 연구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기간이 31.3개월로, 김경령(2010)의 실험참가자들보다 한국어 학습기간(20.5개

월)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어휘력은 더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참가자 그룹이 가지는 한국어 어휘능력 수준으로 해석되거나 또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검증을 통해 실험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부 검사항목을 수정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 제외되었던 학생들까지 모두 포함하면 평균이 66.96%로 상향하였고, 보다 나은 해석을 위해 신뢰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비교 또는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정보의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발달적 수용어휘 정확도는 평균 56.59%로 약 11세(10세 10개월)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수준의 생활어휘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기대하였던 발달연령보다 낮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생활장면과 학업과 관련된 어휘 외에 발달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기본 어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듣기이해력에 비해 읽기이해력이 높은 결과는 구두 의사소통 장면보다 학업을 통한 읽기 활동이 유학생들의 주된 어휘 습득 방법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유학생들의 언어학습 방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들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에서의 부진 및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읽는 것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반면, 듣기를 통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어휘 활용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인들에게 효율적인 어휘 습득을 위해 유용한 학습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형선(2008)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듣기로 습득한 한국어 어휘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문어 텍스트를 통해 습득된 것에 비해 구어 듣기를 통해 습득되는 어휘는 발음이나 문맥 등 다른 요인에 어휘이해가 더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읽기 뿐 아니라 듣기를 통해 정확하게 습득된 어휘가 산출로 쉽게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표현어휘능력이 매우 낮게 나온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발달적 표현어휘검사에서 대상자들은 놀랍게도 약 1세 수준의 표현어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상자들이 발달적 초급어휘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급이나 고급어휘에 비해 초급 어휘의 산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결국 용이한 표현어휘를 습득하는 것이 유학생들의 의사소통 생활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표현어휘의 증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품사별 어휘이해력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두 가지 수용어휘검사 모두 명사>동사>형용사 순의 문항 빈도 분포를 보였으며, 두 검사 모두에서 형용사의 이해가 가장 높았고, 명사와 동사 순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유형선(2008)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선택을 할 때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한국어휘 습득에서 품사별 습득 양상은 선행연구들에서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 김경령(2010)에서는 명사에 비해 동사의 습득이 더 정확한 결과를 보고했지만, 형용사와 동사를 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형용사 요인이 습득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소정 외(2011)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품사별 어휘 정확도를 살펴보았을 때, 수용어휘에 있어서 명사이해에서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형용사보다 명사의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 외국인의 어휘 습득에서 보편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명사 어휘 위주의 교육이 오히려 외국인의 한국어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형용사와 동사를 강조한 어휘 교육이 보다 더 효과적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검사에 사용되는 형용사는 여러 연구에서 명사나 동사에 비해 빈도수가 적다. 따라서 보다 쉬운 문항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전체적인 정확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

또한 발달적 수용어휘이해에서 형용사와 명사의 이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명사의 이해가 형용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형용사에 비해 동사의 이해가 유의미하게 떨어짐으로써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생활어휘이해에서는 동사의 이해가 명사와 형용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저하되어 한국어 동사의 이해에 어려움을 보임으로써 선행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선정된 어휘의 난이도 및 문어와 구어의 차이, 한자어와 고유어의 차이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 어휘 중 형용사의 이해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품사별 표현어휘의 양상을 보면 동사가 형용사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산출되고 있었다. 이는 실생활에 어휘를 사용할 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사어휘의 산출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현어휘검사에서도 형용사의 개수가 가장 적었고 이것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표현어휘검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를 보다 확대 적용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표현어휘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할 것이다.

어종별 어휘이해도의 분포 역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에서는 외래어를 제외한 어종간 이해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한국어 생활어휘에서는 선행연구(범신성, 2010)와 같이 한자어와 외래어에 비해 고유어의 이해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의 고유어 문항들이 생활어휘검사의 고유어 문항들보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더 쉽게 이해되어 한자어에 비해 더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발달적 수용어휘검사는 외래어가 1개, 한자어가 115개, 고유어가 69개로, 한국어 생활어휘검사가 한자어(102개)가 가장 많고, 외래어(78개), 고유어(15개) 순으로 문항 분포에 차이가 나므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표현어휘검사에서 한자어에 비해 고유어의 표현이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은 외국

인 학습자들을 위한 어종 선택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 대해 한자어를 한국어 학습에 이용하는 것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중섭, 1997; 범신성, 2010; 이주영, 2008). 그러나 고유어의 산출이 더 용이하다는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들의 한국어 표현을 촉진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고유어의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유사한 문항을 사용한 김경령(2010)에서는 한자어의 이해가 가장 떨어지고 외래어, 고유어의 순으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표현어휘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들은 한자어에 대한 선행지식이 오히려 한국식 한자어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경봉과 이향화(2005)는 중국어의 간섭에 의한 오류로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한국어 내적 간섭에 의해 한자어의 의미 습득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바오지양(2012)은 한국식 한자어와 중국식 한자어가 같으나 뜻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는 동형이의어와 일부분만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이의어, 중국식 한자어와 한국식 한자어가 완전히 다른 완전이형어 등이 모국어가 한국어 습득을 방해하는 주요 유형이라 하였다. 읽기 자극을 이용하는 것은 한자어 어휘학습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듣기이해가 어려운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듣기이해와 읽기이해의 두 가지 수용어휘를 고려한 한국어 어휘 학습을 진행하면서 표현어휘로의 전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검사어휘들을 난이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중국인 유학생들은 발달적 어휘검사에서 수용어휘는 초급 어휘(57.87%), 중급 어휘(57.68%), 고급 어휘(54.31%) 순으로, 표현어휘는 초급 어휘(22.85%), 중급 어휘(1.74%), 고급 어휘(0%)의 순으로 정답률이 감소하였다. 이는 어휘학습의 발달적 패턴을 반영하는 것으로 어휘의 발달적인 고려 또한 어휘 사용능력(competency)의 증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어 어휘학습에 있어서 발달적인 고려와 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다 충실한 한국어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수용 측면에서 생활어휘와 발달적 어휘 두 검사 모두에서 고급 어휘의 이해가 떨어져 있으며, 특히 생활어휘검사에서 중급어휘에 비해 고급어휘의 이해가 떨어져 있는 것은 김경령(2010)과 일치하는 결과로, 대학수준 이상의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어휘학습이 증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선미(2007)는 빈번히 사용되는 단어가 외국인 학습자에게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또한 쉬운 단어가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단어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찐다, 채소, 등지, 자매, 대역섯, 이쑤시개, 에스컬레이터, 액세서리, 조정하다, 산만하다’ 등의 단어에서 30%이하의 정답률을 보였다. 한편 ‘경력, 다이어트하다, 대출, 흡소핑, 고객, 국산품, 시스템, 인터넷, 마케팅, 부동산, 출금’ 등의 단어는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다. 유학생들의 생활권에서의 어휘의

발달적인 패턴과 함께 학습자들의 생활권과 연결된 난이도를 고려한 어휘의 선택은 이들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중국 유학생들은 유학 오기 전과 유학 온 이후 한국어 습득을 위한 학습이 평균 2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나, 한국어 학습기간이 유학생들의 어휘 능력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박미숙(2010)에서 한국 유학을 위한 준비기간이 한국 적응도와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어거주기간은 어휘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즉, 한국에 거주하며 실생활에서 습득되는 어휘능력이 학생들의 어휘능력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어휘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학습기간과 상관을 보임으로써 한국에 거주하면서 받는 한국어 학습이 이들의 표현 능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모든 실험참가자의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모두 제시되지 않아 한국어능력시험 결과와 어휘력 간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근본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자체에 여러 가지 급수 구분(초급, 중급, 고급, 1-6급 등)이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설립되지 않아 실질적인 유용성이 계속해서 의문시되어 왔다. 김혜영(2010)은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 위주로 이루어지는 데에 비해 한국어능력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해야 하는 불일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 이상을 한국 대학 수학 능력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대학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였다. 최근에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어능력 최저 기준을 3급으로 낮춘다는 발표가 있었다(이재훈, 2012). 이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 및 교수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에 비해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에서 문항별 정답률 또한 통계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의 생활어휘검사는 문금현(2005)에서 구어 텍스트 위주로 선정한 어휘를 바탕으로 문금현 외(2005), 김경령(2010) 등에서 사용한 어휘테스트이다. 따라서 생활어휘검사는 현대 한국 성인이 주로 사용하는 구두 어휘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인 데에 비해, 발달적 어휘검사는 어휘의 발달적 측면에서 문항이 선정된 것으로 이러한 요인이 검사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학생들의 어휘학습에 있어서 실용성을 살린 구어 위주의 교육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어 어휘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유학생들의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제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awir(2005)는 외국인 화자에게 영어교육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문법보다 언어학습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Lawson and Hogben(1996)은 어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리내어 반복 읽기가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어휘의 실질적인 사용과 표현을 강조하는 교수법의 효용성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다. 따라서 어휘의 수용과 표현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학습 방법의 고안이 증가하는 유학생 인구의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과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유학생들의 처지와 현재 요구에 맞는 적절한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학의 근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문적 요구와 전공 어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습득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남예, 2005; 유해준, 2007). 특히, 대학 강의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또는 4급을 취득하고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학생이라 하더라도 전공 수업에 있어서 활용되는 전공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 학습 효과가 떨어지며, 수업의 내용 또한 어휘 설명에 치중하게 되어 전공 내용의 이해와 심화 수업을 기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공별 필수 어휘의 선정과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됨으로써 수업 현장에서 전공 이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허유라(2008)는 이공계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어휘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필수 어휘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공 어휘와 더불어 실생활에 필요한 요구사정과 이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은 이들의 자신감 증진과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 또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달적 어휘력은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였고, 생활어휘력은 선행연구(문금현 외, 2005; 김경령, 2010)의 어휘력 검사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반응신뢰도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본 연구는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5개의 비단어를 무작위로 삽입하여 3개 이상의 단어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3명의 실험대상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이 검사의 신뢰도에 대한 검증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능력 연구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세 가지 어휘검사는 서로 다른 어휘로 측정된 것으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로 듣기어휘력에 대한 읽기이해 검사를 하거나, 읽기어휘력에 대한 듣기이해 검사를 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어휘를 다양하게 평가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표현어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 대상의 한국어 표현어휘에 대한 평가 및 연구를 개발하고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수용어휘와 표현어휘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교수방법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이들이 유학하는 지역이나 전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또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령. (2010).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어휘 습득 연구. *언어학*, 18(4), 219-241.  
 김남예. (2005).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인문계열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중섭. (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자교육 연구. *어문연구*, 15(1), 117-130.
- 김영태·홍경훈·김경희. (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의 개발연구: 문항개발 및 신뢰도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4(1), 34-45.
- 김혜영. (2010).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67-91.
- 문금현. (2000). 구어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연구*, 11(2), 21-61.
- 문금현. (2005). 국어교육: 한국어 다의어 교육의 현황과 전망. *새국어교육*, 71, 67-89.
- 문금현·이홍식·김경령·이영희·김나영·신유진. (2005). *새터민의 언어 적응을 위한 실태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박오지양. (2012). 중국인 학습자 한국어 습득 연구. *어문연구*, 40(2), 445-470.
- 박미숙. (2010). *중국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실태 조사분석: 대구, 경상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범신성. (2010).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사용 실태 및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자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상규. (1998). 말뭉치 분석에 기반을 둔 낱말 빈도의 조사와 그 응용: '연세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글*, 242, 225-270.
- 오소정·김영태·임동선. (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품사별 어휘정확도 및 반응속도 특성. *언어치료연구*, 20(4), 125-142.
- 유해준. (2007).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 어휘 선정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형선. (2008). 한국어 중급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논집*, 21, 5-28.
- 이민호. (2010). *수도권과 지방 대학 한국어학습자의 격차와 원인*.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미. (2007). *한국어의 난도별 어휘 학습 방안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정·신지철·김향희·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표현어휘능력 연구. *언어치료연구*, 17(3), 95-115.
- 이재훈. (2012). 한글전용: 국한혼용, 또 충돌...헌법소원.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660481](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9660481)
- 이주영. (2008).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오류 원인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소. (2012). *한국어 외래어 교육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혁수·전경태. (2009).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논문집*, 20(3), 193-223.
- 조현용. (2000). 한국어 능력 시험 어휘 평가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01, 1-20.
- 최경봉·이향화. (2005).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오류 연구, *어문논집*, 52, 5-36.
- 한상미. (2002). 학습자 자율성에 기초한 한국어 어휘 교육 사례 연구, *한국어교육*, 13(2), 279-307.
- 허유라. (2008). *이공계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Lawson, M. J., & Hogben, D. (1996). Vocabulary-learning strategies of foreign language students, *Language Learning*, 46(1), 101-135.
- Maugwashca, R. U. (1993).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in a second language: Past,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0, 83-100.
- Nation, I. S. P.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New York, NY: Newbury House.
- Pence, K. L., & Justice, L. M. (2011). *Language Development from Theory to Practice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 Robertson, M., Line, M., Jones, S., & Thomas, S. (2000). International students, learning environments and perceptions: A case study using the Delphi technique.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19(1), 89-102.
- Sawir, E. (2005). Language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The effect of prior learning experience.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6(5), 567-580.



## 부록

부록 1. 한국어 생활어휘검사의 개별 항목별 정답률(N=20, Max=100%)

가격인하	70.00	스카우트	30.00	폭우	50.00	시스템	95.00
가이드	65.00	스티커	50.00	프라이버시	25.00	신세대	85.00
감봉당하다	5.00	슬럼프	30.00	플랜카드	60.00	실명제	80.00
개인레슨	40.00	신신당부	25.00	햄	85.00	썰렁하다	50.00
게시판	80.00	아이큐	75.00	홍소평	100.00	아르바이트	100.00
결제	85.00	안달이다	20.00	홈페이지	95.00	애니메이션	80.00
경력	95.00	안성맞춤	15.00	화장실	95.00	엠블런스	30.00
고정관념	75.00	액세서리	25.00	환송회	90.00	에어백	40.00
골키퍼	20.00	앵콜	45.00	회비	90.00	연락처	95.00
공개하다	80.00	업그레이드	45.00	휴게실	100.00	올림픽	80.00
과외	80.00	에스컬레이터	15.00	건배	50.00	음성메시지	75.00
교사	100.00	에티켓	45.00	건전지	55.00	응급실	65.00
교통사고	100.00	여성용	100.00	검소하다	85.00	이쑤시개	10.00
긴장하다	100.00	연예인	90.00	계모임	35.00	이어폰	65.00
노하우	50.00	연중무휴	55.00	고객	100.00	인턴	65.00
다이어트하다	95.00	에비균훈련	75.00	곰빼기	40.00	잡담하다	45.00
대출	95.00	오리엔테이션	50.00	공짜	90.00	적자	45.00
데모하다	25.00	왕따	55.00	공평하다	80.00	주차장	95.00
둥아리	90.00	우회전	70.00	과음하다	50.00	오피스텔	40.00
뒤풀이	40.00	워크숍	60.00	국산품	100.00	유통기한	85.00
디스켓	30.00	월드컵	90.00	근사하다	35.00	임시휴일	65.00
라이벌의식	45.00	유학	100.00	당근이지	55.00	잡채	50.00
마인드	55.00	유행	100.00	지하철	100.00	전(煎)	95.00
맞벌이	75.00	유홍업소	30.00	총선	30.00	제끼다	15.00
싸이코	60.00	의기소침	15.00	치료비	90.00	제출하다	90.00
모범생	70.00	의료보험	85.00	카운터	65.00	종업원	80.00
바가지(요금)	75.00	이사	95.00	커뮤니케이션	80.00	진통제	80.00
보디가드	40.00	익명	35.00	커플	90.00	프로	45.00
부부동반	55.00	인사불성	25.00	탕수육	90.00	프로포즈	60.00
불시검문	25.00	독신생활	85.00	티켓	85.00	햄버거	85.00
브랜드	85.00	드라마	100.00	모델하우스	95.00	헤어스타일	95.00
뽕소니치다	25.00	리포트	75.00	별급	80.00	헛갈리다	50.00
뽕하다	100.00	마케팅	100.00	보너스	50.00	회식	95.00
사사건건	25.00	면허증	85.00	보일러	35.00	횡단보도	75.00
사십구재	5.00	명함	85.00	봉고차	15.00	흡연	75.00
사이버	45.00	작성하다	75.00	부동산	100.00	룸메이트	65.00
사표	65.00	전산화	45.00	분양	55.00	못마땅하다	40.00
삭제하다	70.00	조강지처	10.00	비디오	90.00	반말	95.00
인터넷	100.00	처벌	30.00	빨대	65.00	팀	95.00
일기예보	80.00	첨단	50.00	상담	95.00	퍼센트	65.00
자격지심	50.00	출급	95.00	상품권	100.00	프로그램	90.00
자율	65.00	출장	90.00	샤워	100.00	하수도	50.00
샤프하다	55.00	콤플렉스	35.00	서비스	100.00	부담스럽다	90.00

서빙	60.00	쿠폰	65.00	세일	100.00	세대차이	65.00
성료	35.00	킬로그램	70.00	소프트웨어	55.00	센티미터	60.00
세계화	95.00	테이프	95.00	수풀	25.00	시누이	20.00
섹시하다	75.00	틀게이트	10.00	수표	70.00	시택	35.00
소스	65.00	투자하다	90.00	스트레스	95.00	칭칭장	30.00
슈퍼마켓	95.00	파출부	15.00	스포츠	95.00		

## 부록 2. 발달적 수용어휘검사의 개별 항목별 정답률(N=23, Max=100%)

바퀴	78.26	외투	69.57	대여섯	30.43	피복선	73.91
주전자	60.87	철봉	52.17	늪름하다	65.22	게스즈레하다	69.57
소	43.48	궁궐	82.61	철거하다	65.22	질책하다	69.57
사다리	52.17	썩다	34.78	시위하다	73.91	묘목	73.91
시끄럽다	91.30	숲	43.48	기마전	13.04	그을리다	73.91
발톱	82.61	집배원	47.83	에워싸다	73.91	기술	56.52
요리사	95.65	등지	26.09	산만하다	30.43	신봉하다	30.43
바르다	69.57	겨루다	26.09	융접하다	52.17	파종하다	60.87
설거지하다	34.78	환권	60.87	접종하다	30.43	박멸하다	73.91
접시	78.26	소근거리다	21.74	장착하다	56.52	미달이	69.57
신다	86.96	옛보다	26.09	섬기다	60.87	균의관	69.57
소방관	47.83	환자	34.78	겨누다	69.57	굽다	69.57
뚜껑	82.61	심다	39.13	육군	78.26	강탈하다	65.22
놀라다	78.26	체온계	52.17	소음	78.26	중사하다	43.48
국자	82.61	만국기	17.39	침울하다	69.57	가무	73.91
혀	56.52	책상	43.48	폭우	78.26	번뇌하다	65.22
넥타이	86.96	세면대	78.26	후각	73.91	매몰되다	21.74
집	82.61	전등불	78.26	모발	52.17	방적하다	30.43
잠자리채	34.78	뚝	52.17	사육하다	52.17	절경	65.22
당기다	78.26	협동하다	69.57	건널목	69.57	영장류	56.52
연기	52.17	위급하다	47.83	현상	30.43	성기다	60.87
찢다	30.43	정육점	56.52	시시덕거리다	69.57	외향적	52.17
피리	47.83	일록	60.87	업신여기다	34.78	조정하다	13.04
던지다	43.48	탄광	56.52	부식되다	65.22	유전	47.83
무릎	73.91	석수	73.91	산호	69.57	사색하다	47.83
풀	56.52	식료품	78.26	맘샘	47.83	피뢰침	43.48
구르다	60.87	뿌리	78.26	비집다	69.57	궁홀	39.13
빨다	65.22	확대하다	43.48	빈궁하다	34.78	맹금류	65.22
파괴하다	47.83	자매	21.74	야위다	47.83	주검	34.78
웃	56.52	부축하다	69.57	거구	73.91	검열하다	60.87
팔꿈치	39.13	혜안	78.26	낭독하다	30.43	용해시키다	52.17
채다	82.61	연장	39.13	퀘짝	73.91	과적	39.13
따르다	34.78	도표	39.13	고삐	13.04	잉태하다	65.22
삼	82.61	해부하다	73.91	모과	52.17	상쇄하다	13.04
기둥	47.83	굽이치다	69.57	답사하다	65.22	투항하다	65.22
채소	30.43	토론하다	73.91	타박상	73.91	편중	56.52
따뜻하다	47.83	버드나무	69.57	우뢰	65.22	봉화	56.52
뉘다	60.87	부화하다	73.91	관현악	65.22	도정하다	39.13

망원경	73.91	설계사	65.22	중추	65.22	반추하다	47.83
격파하다	82.61	비석	69.57	축산물	60.87	탈고하다	65.22
가득하다	69.57	추수하다	43.48	원예	43.48	산적하다	60.87
각다	52.17	한쌍	17.39	노쇠하다	34.78	산재하다	30.43
농부	56.52	가축	13.04	쌀겨	21.74	다사롭다	65.22
곡식	60.87	각도기	30.43	지혈하다	73.91	독특하다	60.87
마르다	52.17	조명	56.52	광야	43.48		
실망하다	52.17	침몰하다	78.26	만발하다	69.57		
쓰다듬다	73.91	방충망	73.91	청중	56.52		

부록 3. 발달적 표현어휘검사의 개별 항목별 정답률(N=23, Max=100%)

냉장고	65.22	북	0.00	비추다	4.35	울퉁불퉁하다	0.00
할아버지	60.87	기어가다	0.00	답	4.35	평화롭다	0.00
컴퓨터	65.22	바람개비	4.35	논	0.00	경운기	0.00
미끄럼틀	21.74	연	4.35	기와	4.35	빙산	0.00
연필	52.17	춧불	8.70	유연하다	4.35	통역사	0.00
앉아있다	65.22	바이올린	0.00	불편하다	4.35	어지럽다	0.00
이	56.52	택시	17.39	땀	0.00	탑승하다	0.00
고추	60.87	잡다	17.39	번지다	4.35	경주하다	0.00
구름	47.83	뽕죽하다	4.35	간호하다	0.00	체포하다	0.00
타다	52.17	연기	8.70	재판하다	0.00	공연하다	0.00
출다	65.22	우체국	8.70	날카롭다	0.00	폐수	0.00
오르다	52.17	부러지다	4.35	약수터	0.00	지피다	0.00
싸우다	65.22	화분	8.70	오염되다	4.35	매표소	0.00
과자	56.52	스케이트	0.00	농촌	0.00	값아먹다	0.00
바다	60.87	힐리다	8.70	성장하다	4.35	성묘	0.00
시소	4.35	놀랍다	8.70	판사	0.00	내장	0.00
놀이터	8.70	바느질하다	8.70	일본	4.35	어류	0.00
병아리	30.43	뉘시하다	8.70	나이테	4.35	화폐	0.00
চিত	34.78	배달하다	8.70	무기류	0.00	사물놀이	0.00
주다	52.17	누리다	8.70	가뭄	0.00	빗금	0.00
경찰	65.22	배부르다	8.70	타원	0.00	해조	0.00
무겁다	52.17	굴뚝	0.00	양념	0.00	(치맛)단	0.00
네모	21.74	은행잎	0.00	피곤하다	0.00	약도	0.00
넘어지다	26.09	선인장	4.35	마름모	0.00	나그네	0.00
버섯	34.78	폭포	8.70	질기다	0.00	인종	0.00
목욕하다	34.78	부드럽다	8.70	꿈틀거리다	0.00	새기다	0.00
신문	39.13	백조	0.00	으시대다	0.00	상쾌하다	0.00
거미줄	0.00	단풍잎	8.70	불꽃놀이	0.00	휘젓다	0.00
따다	34.78	쓰다듬다	0.00	침몰되다	0.00	빚다	0.00
자르다	4.35	어부	8.70	이끼	0.00	수상하다	0.00
운전하다	39.13	그릇	4.35	구출하다	0.00	골절되다	0.00
문	43.48	바쁘다	8.70	맷히다	0.00	완만하다	0.00
계	34.78	전쟁	4.35	행성	0.00	관측하다	0.00
신호등	43.48	즐기	0.00	찌푸리다	0.00	명절	0.00
장난감	34.78	분수대	4.35	산봉우리	0.00	지하도	0.00

퐁퐁하다	43.48	짧다	4.35	관광객	0.00	안내하다	0.00
냄새맡다	30.43	천정	0.00	비슷하다	0.00	밀림	0.00
인사하다	34.78	운동회	8.70	소매	0.00	퀘도	0.00
과일	39.13	조중사	0.00	가열하다	0.00	테두리	0.00
숫자	43.48	남떠러지	4.35	호수	0.00	고고학자	0.00
화내다	43.48	공항	4.35	추수하다	0.00	가파르다	0.00
주사위	4.35	무대	4.35	연설하다	0.00	문상하다	0.00
장화	4.35	이슬	4.35	견인하다	0.00	모퉁이	0.00
떨어지다	43.48	마당	4.35	난초	0.00	출렁거리다	0.00
소방차	43.48	우물	4.35	장례식	0.00		
빨	4.35	인디언	4.35	(턱을) 괴다	0.00		
똑같다	17.39	캐다	0.00	안전하다	0.00		

**장선아**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언어치료·청각재활학부  
 전화: (042)630-9221  
 이메일: parfum0@daum.net

**박희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전화: (02)3277-2120  
 이메일: hypark1020@gmail.com

**김문홍**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전화: (042)630-9188  
 이메일: mhkim@wsu.ac.kr

Received on September 30, 201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ember 20, 2014  
 Accepted on December 1, 2014